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정진한 생활

겨울성경학교 일제히 개막

'거듭난 인간 · 성숙한 신자 ·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삶' 실현하도록

이번 주간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의 겨울성경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일제히 개막된다.

겨울방학기간을 통하여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학교의 계절학교는 지난 달에 가졌던 중 ·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 대학부가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마쳤으며, 이번 주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3월 2일에 마치는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리게 된다.

계절학교는 매 주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교사들은 주일에 미처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효과적인 계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계절학교 기간은 학부모들도 교회학교 교육에 평소보다 관심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된다.

이번 기간이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깊이 만남으로 우리교회의 교육목표인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시민'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동시에 주변에 아직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교회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겠다.

부서	주제	실시일	장소	강사
유치부	구원의 길	2월 29일(목) 오전 9시 - 오후 2시	별관 유치부실	홍영록 선생
유년부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가 되자	2월 29일(목) ~ 3월 1일(금) 오전 9시 -	3층 유년부실	이순환 목사
초등부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	2월 29일(목) ~ 3월 1일(금) 오전 9시 -	4층 초등부실	박종상 교역사
사랑부	뛰면서 찬양하리	3월 1일(금) 오전 9시 - 오후 4시	별관 사랑부실	임진태 목사
청년부	예수 사람 · 예수 바람	2월 29일(목) - 3월 2일(토), 2박 3일간	사랑의 집	박귀환 목사

'96 상반기 장학생 선발

오늘 찬양예배 시 장학금 수여식

교회내 장학생 57명, 농어촌 목회자 자녀 48명에게 장학금 전달

장학회(회장:김대호 장로)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다.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에서

는 교구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학교 지도 목사의 추천을 통해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

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또한 100교회운동을 시작한 작년부터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교회 내 장학생 57명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 4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10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선발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내 장학생 *

대학생 (신학생)

권재현 채수호 김 진 이원준 허 철 이맹영 홍영조 홍영록
박창수 유현주 김영숙 유사라 이주은 배혜정 홍진선 조선정
김찬진 김주연 송인선 최혜진 손영희 최미현 이승현 김 희
(24명)

고등학생

백 훈 황중훈 홍석현 이승현 신천규 장은규 유명진 김하나
오정주 박효인 곽정임 고은혜 주미영 정희진 유혜진 강혜진
안상미
(17명)

중학생

김재화 안영석 임인섭 임만석 주정주 이환희 박승기 전영훈
김윤정 진선미 이슬미 고은정 곽소은 김은정 김수정 박은혜
(16명)

*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 *

대학생 (신학생)

김은성 김 면 백종석 백종학 김유진 구은진 서영제 서은진
송명종 송은아 심에스터 엄지영 오도원 오은선 유요섭 윤동한
이나비 이성결 이종순 배재은 전준봉
(21명)

고등학생

김 관 김강석 심요한 오소영 이경신 안애림 이신자 박영선
정효경 정소영 정지영 최 용 최다윗 최 현
(14명)

중학생

김 류 김하나 남기명 박현우 심어진 엄영섭 오신영 유안나
이사라 안인국 이재천 장은화 최성수
(13명)

창세기
강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37장 36절)

이 중 운 목사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또다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예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괴로운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상속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무서운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요셉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자기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1. 애굽은 고대문명국가

애굽은 BC 5500년 - 3100년 경 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4대 문명국 중 하나였던 애굽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이미 꽃핀 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 애굽은 31대 왕조의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때는 15대 왕조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430년간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살았으며 바로왕 (Ramses II) 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애굽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위치하여 땅이 비옥했으며 찬란한 태양 아래서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게 수확되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했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인근에는 적국이 없었으며, 피라미트로 유명한 애굽은 그 당시에도 수학, 천문학, 건축술, 예술이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2. 애굽은 이방나라

요셉이 간 애굽은 고대 문명국이지만 이방 나라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물활론(animism)에 물들어 있었고 참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초기 부족들은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창조주께 예물을 드리는 대신

잡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 종교는 로마서 1장에 지적한대로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려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롬1:20-23).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 땅, 그리고 태양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신(Osiris), 강의 생물의 신(Nu), 땅의 신(gef), 추수의 신(Min), 황소의 신(Apis), 지혜와 발명과 저술의 신(thoth), 하늘신(Shu), 태양신(Ra) 등 수없이 많은 신들을 신봉했습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했던 그들에게는 여러 모양의 치유의 신들(Amon, Horus...)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빌어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신을 치셨습니다.

3. 애굽에 있을 때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행하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격언대로라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는 애굽인처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수백가지 신에게 예배하면서 그들이 복을 준다고 믿었던 애굽인들 속에서 노예였던 요셉은 애굽인의 강요에 대해 수동적으로 행동해야할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옷은 찢겨졌으나 그의 성품과 결심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대신 노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도덕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다신교의 위협을 이길 수 있게 하였고, 비도덕적이고 악한 충동질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언어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말하며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창39:9).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창40:8). 뿐 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대답을 바로에게 주실 것이요”라며 (창41:16, 25, 28, 32)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창45:5, 7-8)라고 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해 말할 때에도(창48:9),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순간까지도(창50:24-25)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요셉의 말이요 이야기의 주제며, 하나님은 곧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으며 요셉은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유해환경 극복론”

환경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바로 처리하고 유해폐기물이나 퇴폐품을 제거하면 환경이 정화되고 사회는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옳은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법규를 만들어 좋은 환경유지에 힘을 쓰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도 하기 전에 오염된 환경 때문에 질식하고 있다고 걱정을 한다. 경고물을 부착하고 학교 주변의 담배자판기를 없애고 음란 비디오 가게를 철수시켰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규제를 했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유해환경으로부터 그들의 발을 멀리 떼어놓는 소극적 대응책 보다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들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과 가치관과 무엇보다 신앙을 가진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주여,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소서

겨울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회와 교사 특강, 그리고 각종 준비모임들로 분주한 교회학교들.
지난 22일(목)에 있었던 사랑부 교사 특강 중에서 발제하여
교회학교 교사의 자세와 성경학교를 앞둔 교사들의 기도 내용을 실어본다

교회학교 교사는...

1. 학생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 능력에 맞는 공과학습과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2. 내게 맡겨주신 학생을 위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3. 사랑과 인내로서 철저히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4. 부서 내의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써 참여해야 한다.
5. 주일에 결석해서는 안된다.
6. 기도는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기도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예배드릴 때 불필요한 말은 삼간다.
8. 학생이 인도자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과공부를 할때는...

1.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요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학생 수준에 맞는 보조자료, 시청각 자료 등을 준비하면 효과적이다.
3.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천천히, 반복하여 가르친다.
4. 학생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은 미

리 정리해야 한다.

5. 학생의 상태와 신앙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용점을 찾으려 해야 한다.
6. 공부가 끝나면 학생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친다.

겨울성경학교를 앞둔 교사의 기도

1.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사가 되게 하소서
2.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하소서
3.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4. 겨울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5. 저희에게 맡겨 주신 양들의 영혼과 육신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6. 소외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7.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8. 우리 교회학교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9. 서울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소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없게 하시고, 온 교우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소서)
10. 세우신 일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회개의 절기 사순절 시작

사순절(四旬節)이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는 2월 21일부터 부활주일 전날인 4월 6일까지가 사순절에 해당된다. 이 절기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근신과 회개의 삶을 살므로써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기간이다.

사순절은 앵글로 색슨의 '봄'이란 의미의 렌넨(Lenten)에서 왔다. 그리고 '40'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한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이 40일이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세기 교회들은 사순절을 회개의 절기로 삼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훈련하는 이 기간에는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별한 기간 금식을 한다든지 기호식품을 절제함으로써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는 기간이기도 하다.

참회와 근신과 경건의 훈련으로 회개의 절기인 사순절을 지냄으로써 의미있는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자.

■ 순례길에 만난 사람

독주회 갖는 정은영 선생



“봉사를 통해 은사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 있기에 뒷모습 밖에 볼 수 없지만 주일 2부 예배 시간마다 힘찬 터지의 피아노 음색으로 만날 수 있는 정은영 선생. 27일(화), 예술의 전당에서 가지는 독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모차르트, 라벨, 프로코피에프, 슈만 등 고전에서 현대까지의 강한 개성을 가진 거장들의

작품을 다루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다양한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 표현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서 잦은 변신과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피아니스트라면 한 번 도전하고픈 이러한 곡들을 다루게 되어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지만, 부담감이 너무나 큼니다”라며 소감을 말한다.

부모님(정용철 집사·김윤자 권사)의 신앙적 가르침과 받은 은사를 따라 중학교 때부터 음악교육을 받아왔다는 정은영 선생은 부군 조민식 성도와 함께 한 3년간의 미국 유학시절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봉사를 통해 이를 성숙시킬 수 있었다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 중에 만난 훌륭한 교수님의 지도와 3년간의 꾸준한 교회봉사를 통해 제 나름대로의 음악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음악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1994년도에 귀국하여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때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주한 구노의 ‘장엄한 예배’의 피아노 반주를 맡

으면서부터 계속 봉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인 조은주 선생의 경륜 높은 연주에 호흡을 맞추면서 음악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힘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고 말한다.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복종에서부터 다 들어서인지 음악성이 있어 보여요”라며 이제 막 두돌이지난 딸 아라의 소개도 잊지 않는 정 선생은 현재 올케인 한정은 선생(유년부 반주자)과 함께 참사랑학원을 경영하면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계원예고에도 출강할 예정이다.

새학기부터 부군도 교원대에 교수로 가게 되었다는데, 이 모든 일에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 힘이 컸다고.

“이번 연주회에도 다락방 식구들과 찬양대원들의 기도와 격려의 응원을 힘입어 든든한 마음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감사의 말을 덧붙였다.

이종운 목사 세계로잔총회 참석차 출국

이종운牧사는 세계로잔위원 총회 참석차 26일(월)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출국한다. 한편 건축위원회는 새성전 설계를 완성하기 전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유럽의 교회들을 돌아봄으로써 21세기에 걸맞은 예배당 건축에 반영하기 위해 새 예배당 설계회사인 정림건축의 이형제 이사(팀장)와 박철훈·오정수 장로를 유럽으로 파송한다. 이들은 로잔 총회를 마치는 3월 1일에 이종운 목사님과 합류하여 유럽 교회당을 순방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케 된다.

학원선교회 총회

2월 29일(목) 오후 5시 2층예배실

전도위원회 산하 학원선교회(회장: 홍성주 집사)는 1996년도 새학년 새학기들을 앞두고 29일(목) 오후 5시 2층예배실에서 총회를 가진다.

학원복음화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1994년 3월에 창립되어 청소년 유해환경과 퇴폐적인 저질문화의 범람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급의 세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학원선교회에는 각급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사, 학원관계자 및 청소년 복음화와 학원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 3을 위한 후원자 모집

고등부(부장: 정병무 장로)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 둔 고 3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모임을 매년 갖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결연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고 3 학부모 및 관심있는 성도는 3월 3일(주일)까지 고등부교사실로 신청하면 된다.

새생명이 자라나도록 돕는 일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하신 예수님께서 죽은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는 수의에 묶인 채 무덤에서 일어나왔다. 예수님께서 주변사람들에게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는 수건이 싸인 나사로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요11:44).

오늘 환영을 받는 새가족 중에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곳에서 교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로 한 성도도 있고, 동아일보에 게재되는 <순례자>컬럼을 통해 우리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성도도 있다. 심야전도단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와 인도에 의해서, 교회 간판을 보고, 전도지를 받아 들고 ...,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좀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위의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마치 다시산 나사로에게 수의를 풀어주는 손길이 필요하듯,

이제 우리교회 울타리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로 한 새가족들이 좀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2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2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2월의 새가족 *

백춘자 조선정 이인숙 정혜정 임신애 김용이 박선영 조양빈 김혜영 김태복
이완건 박형자 박정수 김경옥 임재일 박운수 최병무 정수진 주성우 최영희
윤성지 우봉식 정진원 박윤신 윤 평 신창호 송해숙 신경희 김응규 주영훈
이상호 이성래 신현수 김은경 강대우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9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 / 1996년 2월 26일(월) ~ 3월 25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경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일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517-7651 ~ 5; 팩스 512-1225)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국동방송(HLJ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국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계절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2. 장학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들이 될 수 있도록
3. 새가족들이 교회생활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4. 로잔 총회에 참석하시는 이종운 목사님과 해외의 교우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